



이달의 추천 자연휴양림 1

“운문산 자연휴양림”



- 홈페이지 : <http://www.huyang.go.kr/>
- 예약문의 : 054) 371-1323(휴양림관리사무소)

대구 경남 언양간 지방도(69호선)변에 위치, 영남 7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운문산(일명 호거산 1,188m) 기슭에 위치하여,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남부지역에 위치하는 문복산(1,014m)과 영남의 알프스라 칭하는 가지산(1,240m)등 해발 1,000m이상의 고봉에 둘러싸여 있어 여름철 피서는 물론 등산과 삼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인근에는 비구니 승가대학인 운문사와 주민 식수원인 운문댐을 볼 수 있다.

휴양림 입구에는 옛 운문성을 재현한 특이한 정문 조형물과 시설지구내에 20m 높이에 은막의 물을 쏟아 붓고 있는 용미폭포와 모래흙이 없는 완전 암반바위를 구슬같이 흘러내리는 벽계수와 계곡에 자생하는 노각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울창한 천연활엽수림 지역으로 여름에는 울창한 숲으로 더위를 잊게하고 가을에는 기암괴석과 조화된 형형색색의 단풍과 겨울에는 심산계곡의 고요한 자연속에서 포근한 설경과 얼음동산, 용미폭포의 빙벽은 절경이며 동쪽 2km지점에 위치한 운문령에서는 동해의 해돋이 관광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지역이다.

자연환경

운문산자연휴양림에는 다양한 활엽수종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노각나무, 사람주나무, 고로쇠나무, 비목나무, 쪽동백 등과 신갈, 굴참같은 참나무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종이 안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봄에는 화사한 꽃으로, 여름이면 맑고 깨끗한 계곡의 시원함으로, 가을에는 오색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고객을 부르고 있다.

휴양림 입구에는 옛 운문성을 재현한 돌성곽을 쌓았으며, 휴양림내 등산로를 따라 30여분 정도 산을 오르다 보면 약 20m 높이의 용미폭포가 시원한 은빛 물줄기를 쏟아내며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휴양림의 보유 서비스

운문산자연휴양림에는 숲해설가와 숲 생태안내인이 각각 1인씩 있어 다른 휴양림에 비하여 산림교육이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다. 1명의 숲해설가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씩(둘째, 넷째 일요일) 휴양림이용객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실시할 예정이고, 숲생태 안내인은 6월부터 10월 사이에 휴양림내 분포한 다양한 활엽수종을 이용하여 목재소재 소규모소품 만들기(DIY체험)로 휴양객의 체험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 숯가마터와 표고 버섯재배장, 야생식물관찰원, 농경시대 귀틀집 등이 휴양림 내에 있어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휴양림에서 2km위에 위치한 운문령에서는 영남알프스의 가장 큰 봉우리인 가지산(해발1,240m)을 왕복 4시간 정보 소요되는 시간으로 등산을 즐길 수 있다.

운문산
자연휴양림
찾아가는곳

